

“시는 노래였고 노래는 삶이었다”

이상원 조선대 교수 ‘조선 후기 가집(歌集) 연구’ 펴내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시(詩)가 노래로 불렸다. 시조나 가사가 노래로 불렸고, 가집(歌集)의 형태로 묶여지기도 했다. 시가 노래로 불렸다는 것은 삶의 현장과 문학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는 얘기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가집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책이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원 조선대학교(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펴낸 ‘조선 후기 가집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는 오늘의 관점에서 시와 노래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저서다.

“조선 후기, 즉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인층, 중간계층이 시조에 관심을 갖고 노래를 불렀다. 이들에게는 국문으로 된 노래(시가)가 한문으로 된 노래보다 접근하기도 쉬웠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용이했다.”

이 교수가 18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 200년에 걸쳐 편찬된 가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다. 또 하나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시와 노래가 하나로 결합돼 있었지만 현대에는 분리된 채, 각기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즐겼던 가집에는 제각기 다른 질서와 규칙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가집의 분석을 통해 특정 시대 특정 그룹이 어떤 지향의 노래들을 선호하였는가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실질 조선 초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양반 위주로 시집과 문집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지식



18세기~20세기 200년간 편찬된 가집 체계적 연구 시대 들여다 본 문학텍스트 호평

인들과 중간계층들이 우수한 시가(시조, 가사)를 책으로 묶어내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시가를 부르는 이들을 가객이라 칭했는데 오늘날의 가수와 같은 의미다.

“인기 있는 가객 팀에는 그 가객이 키우는 후임이 있었고, 곡을 켜는 악공, 기생이 한조를 이루고 있었다. 가객 팀에서 즐겨 부르는 레퍼토리에 대한 확보, 다시 말해 그것을 기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가집 편찬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재와 주제는 특별히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덧붙인다. “당대의 노래는 곡조별로 시상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집들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낡은 책 속의 작품들을 꼼꼼히 들여다본 계기는 의외로 간단하다. 핵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집들이 어떤 형태로 수록되었나를 파악해야만 이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이 교수는 2006년 조선대에 임용되면서 광주에 정착했다. 그 해 그는 가족들과 함께 빛고을에 동지를 틀었다. 이 교수는 “10년 가까이 되니 광주 사람이 다 되었다. 광주의 음식이 너무 맛있고 주위에 좋은 분도 많아 이곳 생활에 만족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가사 문학의 산실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고전문학을 토대로 문화론적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는 그는 문학텍스트를 당대의 문화와 예술의 틀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언급한다. 사실, 우리의 전통 시가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잊혀진 상태다. 그러나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시가는 노래였고, 노래는 삶이었다.

이 교수는 현대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조심스러운 조언을 한다. 시를 문학의 틀로만 볼 게 아니라 대중가요나 노래와 연관해 들여다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당대 문화와 예술의 틀에서 문학 텍스트를 연구하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내 근현대 화가 미술품 낙찰가 박수근 호당 2억8000만원 1위

이중섭·장욱진·김환기 順

국내 근현대 화가 중 미술품 호당 가격과 경쟁력이 가장 높은 작가는 박수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미술사가검정협회와 미술경제전문지 ‘아트프라이스’의 김영석 이사장은 16일 공개한 논문 ‘한국 근현대 회화의 경매가격 분석에 의한 가격지수 연구’에서 2005~2014년 14개 경매회사의 미술품 낙찰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낙찰 총액 기준 상위 20명의 화가 중 호당가격이 가장 높은 화가는 박수근으로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중섭(1억6000만원), 장욱진(3000만원), 김환기(1000만원), 천경자(1700만원) 등의 순으로 호당 가격이 높았다.

낙찰총액은 이우환이 약 712억 원



박수근



김환기

으로 가장 높았고, 작품의 평균가격은 1억2500만 원이었다. 낙찰률 1위는 단색화 열풍의 중심에 있는 정성화로 81.97%를 기록했고, 이대원(76.16%)과 오치균(76.06%)이 뒤를 이었다. 호당 가격이 가장 높은 박수근은 75.11%의 낙찰률로 4위를 차지했다. 호당 가격과 낙찰률 종합해 도출한 화가 경쟁력 지수는 박수근이 95.82로 가장 높았고, 이중섭(60.98), 장욱진(50.47), 정성화(50.12), 김환기(48.76), 이대원(47.41)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이정록씨 수림사진문화상 작가상 수상

사진작가 이정록(사진) 씨가 제2회 수림사진문화상 작가상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림문화재단(이사장 하정웅)이 지난해 제정한 수림사진문화상은 작가상과 공로상으로 나뉘며 지원서를 받지 않고 추천 심사제도로 6~7명의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고 있다. 작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올해는 이 작가를 비롯해 박홍순·이재갑·장숙·전정은 작가가 작가상에, 이순심 갤러리·나우 대표가 공로상에 선정됐다. 작가상 수상자 5명의 대표작은 24



이정록

일까지 서울 한벽원갤러리에 전시된다. 이씨는 광주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로체스터공과대학(R.I.T) 영상예술대학원 순수사진을 전공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작가는 “뜻하지 않는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더 작품활동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청암전국고수대회

20일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제7회 청암전국고수대회가 오는 20일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BBS광주불교방송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청암판소리교보총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명고수인 청암 김성권(사진) 선생(1943~2008)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국악인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명고부와 일반부, 청장년부, 임부부, 학생부로 구분해 실시되며, 학생부 최고상에는 교육부장관이 수여된다. 경연대회에 이어 전년 대회 수상자와 국악인들이 함께 펼치는 공연무대도 열린다.

1943년 강진에서 태어난 김성권 선생은 15세 때 박선행 선생에게서 판소리교보 지도를 받기 시작했으며, 18세 때는 정응민 선생에게 판소리 심청가를 사사했다.

27세 때인 1955년부터 성원록 선생께 본격적인 판소리교보를 연마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중앙문화재단 제5호 판소리교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문의 062-672-5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무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19일 콘텐츠사업지원센터



지난해 공연된 ‘유린 타운’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안나)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공연한다. 19일 오후 2시·7시 광주문화재단사업지원센터.

문화예술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뮤지컬 클래스’를 진행중인 문화의 집은 지금까지 ‘페임’, ‘뫼투스’, ‘그리스’, ‘맘미미아’, ‘유린타운’ 등 다채로운 작품을 공연했다.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투나잇’ 등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참가자들은 약 9개월간 음악, 연기, 안무 수업과 집중 트레이닝 캠프 등을 통해 작품을 준비해왔으며 연기감사 최유랑씨 등이 지도를 맡았다.

한편 문화의 집은 퓨전 퍼포먼스 클래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10월 17일 연바람씨어터), 공간 디자인 클래스 ‘깃’(11월13일 대인디자인 청소년 작업장 생강하는 손)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62-375-1324.

티켓 가격 3000원. 단체 관람(10명 이상)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영화의 집 19일 플리마켓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19일 오후 2시~7시까지 두번째 플리마켓이 열린다. 지난 2월 문을 연 영화의 집은 광주극장 사택을 개조한 공간으로 지금까지 감독과의 대화, 공연, 소모임,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20여개 팀이 참여하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지난 2009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소규모 아카시아밴드 스토리’의 주인공인 2인조 그룹 ‘소규모 아카시아밴드’(사진)와 ‘유기농 펍크 포크 사이’, 아이리쉬 밴드



‘가리수불’이 출연한다. cafe.naver.com/cino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익성 상가 매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2억, 용 6억) 매가 14억 5천

2층 상가 매매

〈나주 삼영동〉

(영산중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 6칸 (올임대) 2층 2칸 (사무실,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보2천, 용 1억2천)
매가 2억 9천

3층 상가 매매

(수암동 4층중 3층)

월수익 180만
(보3천, 용2억5천) 실투자금액 →1억
매가 3억 7천

010-7384-7800 / 010-6670-9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① 상무지구 정영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9천만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6천만
- ⑤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면,모아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⑦ 서구 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⑧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⑨ 광양 광영동 상가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4천만
- ⑩ 전남장성 시골주택 매매 장성읍 2분! 장성읍 8분! (토지 160평) → 매가 4천5백만

법률 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가)

- 1.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정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2.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3.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4.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정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5.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정가 3억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6. 광산구월(토122평,건178평)감정가16억2천→최저가9억
- 7.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정가4억2천→최저가1억8천
- 8. 서구 치평동 (토3평,건133평) 감정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6천3백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1. 북구 두암동 (토60평,건154평)감정가4억→최저가2dr8cjs
- 2.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정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시설, 통건물)

- 1. 북구 누문동(토305평,건238평)감정가 11억7천→8억2천
- 2.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정가4억9천→최저가 2억6천8백
- 3.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정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4.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6억
- 5.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정가 5억7천→최저가 4억
- 6.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정가 22억3천→최저가 22억3천
- 7. 광산구 평암동 (정례시청) (토 516평,건920평) 감정가 36억7천 → 최저가 29억

모델/주유소

- 1. 광산구 평암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정가27억→최저가15억
- 2. 광산구 평암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8억4천
- 3. 북구 두암동(주유소) (토204평,건114평) 감정가 11억9천→최저가 11억 9천

062-382-5500/010-6832-9700

경매 무료 공개강좌

(서울 유명 교수 초빙)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기본 이론위주)
☆ 1회 무료 모의수강후 등록가능

경매 실전 교육

실전교육듣고 바로 수익 창출 가능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전 11시~1시
오후 7시~8시30분

(입찰,임대,매매~개발기획까지)